

Sermon Notes:

서론: 바울의 놀라운 사역 뒤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!
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->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.

본론:

1. 바울의 동역자들

- 가. 뫼비: 겐그리아 출신 여 집사,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감, 보호자, 재력을 갖춘 여인
- 나. 브리스길라, 아굴라 부부: 본도 출신, 장막업, 고린도에서 만남 (행 18 장), 바울을 위해 목숨도 내놓음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, 가정 교회 리더
- 다. 에베네도: 아시아에서 복음의 첫 열매, 믿음의 사람
- 라. 마리아: 이방 지역 출신,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헌신됨
- 마. 안디로니고, 유니아: 바울과 긴밀한 관계, 함께 수감
- 바. 암블리아: 바울과 깊은 우정
- 사. 나깃수: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해방된 유명한 노예
- 아. 루포: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->온 가족이 구원

2. 바울의 동역자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

- 가. 동역자들의 다양함: 신분의 차이-> 차별이 없음
- 나. 동역자들의 헌신: 드러나지 않게 사역한 믿음의 사람들

결론: 우리 모두 이름 앞에 아름다운 수식어들이 붙어 풍성한 상급을 받는, 하나님께 기억되는 동역자들이 되십시다.

암송구절: 로마서 16 장 4 절

‘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’

Memo/Reflection:

- 1. 자신이 어둔 세상을 밝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여기는가?
- 2. 지체들을 동역자로 여기는가?
- 3. 자신이 동역자라면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는가?
- 4.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 같은가?